

1995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발표회를 마치고

1995년도 춘계총회 및 연구논문 발표회를 마치고 1995년도 우리 고분자학회의 춘계총회 및 논문발표회가 지난 4월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수원의 성균관대학교 이공대학 캠퍼스에서 개최되었다. 금년으로 창립 19주년을 맞는 고분자학회의 이번 행사에 약 650여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화창한 봄날씨 속에서 성황을 이루었다. 4월 14일에는 포스터 발표, 초청특별강연, 총회 및 간친회가 있었으며, 4월 15일에는 8개 발표회장으로 나누어 산학연 심포지움과 논문 발표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총회에서는 전임 회장단과 집행부 그리고 전년도 회원사들중 학회에 기여도가 큰 회사에 대한 감사패 증정이 있었으며, 학회 학술상 및 기술상 수여가 있었다. 올해 학술상은 서울대학교 장정식 교수와 부산대학교 하창식 교수가 수상하였으며 기술상은 제일모직 우상선 박사가 수상하였다. 총회에서 특기할 사항으로는 학회 정관의 평의원회와 국제협력위원회 규정이 제안·통과되어 보다 조직적인 학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한 점이었다. 한편 초청 특별 강연 및 특별강연과 산학연 심포지움의 초청연사로는 일본에서 6명, 미국 및 중국에서 각각 1명, 그리고 국내에서 12명의 발표가 있었고, 포스터 발표 106편, 구두발표 122편의 발표가 있었다. 토요일 늦게까지 시간가는 줄 모르고 진지하게 논문발표회가 진행되어 보람있는 행사가 된 것으로 본다. 연구논문 발표회의 진행에 있어 발표 시간이 일부 지연되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과, 좌장을 맡으신 분들의 사정으로 변경이 많은 점 등을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기도 하였다.

금번 행사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은 성균관대학교 고분자공학과와 화학공학과의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협조와 노고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본다. 지면을 통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직간사 이대수〉

